

# 사물을 분석·고찰하는것



## 23 알음알이와 분별

‘알음알이’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약삭빠른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흔히 ‘잔꾀’ ‘잔머리’ 등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로 ‘알음알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공개적인 것이 아닌 ‘몰래몰래’ ‘살살살살 하다’라는 뜻입니다. ‘알음알음으로 취직하다’는 말도 그런 뜻으로 모두 다 ‘정정당당하지 못함’ 또는 ‘자기 나름대로’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 실제 수행은 않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심 깨달음 막는 적

선에서 ‘알음알이’는 ‘잔머리를 굴리다’ ‘헤아리다’ ‘측량하다’ ‘억측하다’ ‘분석하다’ 등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관화선에서는 아주 급류로 간주합니다. 정면으로 화두를 참구하지는 않고 머리를 굴려서 암암리에 알고 하는 것, 또는 이리저리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알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 속에는 실제적인 수행은 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알음알이를 한자로는 ‘지해(知解: 知=알음, 解=알이)’라고 씁니다. 슬기로운을 뜻하는 ‘지혜(智慧)’가 아니라 ‘지능’ ‘약삭빠름’을 뜻하는 ‘지해(知解)’입니다. 한자로는 그럴싸하지만 쓰임새는 다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음알이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어록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로 ‘사량(思量)·분별심(分別心)을 갖지 말라’는 표현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량’은 생각으로 측량, 헤아리는 마음이고 ‘분별심’은 사물을 구별하여 가리는 마음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이 역시 알음알이의 일종입니다. 사색(思索)은 분석력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분석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석력이 없으면 정치도 사업도 학문도 논문도 쓸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그마한 구멍가게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분석력 아래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사물의 실체를 파헤치는 분석적인 사고나 또는 지식의 산물인 알음알이, 종류 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심 등은 모두 깨달음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과 일반의 시각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은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의 목적은 무집착·무소유이고 사회일반의 목적은 소유이며, 선의 탐구방법은 직관이고 무분별하며, 일반의 탐구방법

은 분석적·분별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분석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또 경전이나 학문을 탐구한다거나 교리를 연구하는데도 분별·분석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분별·분석력이 없다면 어떻게 경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분별력과 분석력 등은 화두를 참구하는 선에만 금기시하는 것이지, 교학에서는 어느 정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에서는 사랑·분별심과 분석력·알음알이 등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첫째 알음알이나 사랑·분별심 또는 분석적 사고는 모두 한결같이 지능적 관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실제적인 수행을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굴려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뿐 체험을 통하여 확인·고증·체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

다. 선의 세계는 실제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空)·중도·무집착의 세계를 인식·실천·체득하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사랑·분별하거나 알음알이에 매달리게 되면 정신력·집중력이 분산됩니다. 특히 ‘알음알이’와 분별심은 이걸까 저걸까 하는 ‘망설이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을 동반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곧장 한 길로 매진해야 하는데 망설이거나 방황한다면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물은 100에서 끓습니다. 100도가 되게 하지만 화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분산한다면 끓지 않습니다.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셋째는 공(空)·중도·무집착 등 선의 철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선과 화두탐구의 목적은 번뇌와 욕망 등 일체 잡념을 비워 공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알음알이나 분별심은 이것저것 구별하여 머리를 꽂 채우는 행위로 무집착·공(空)과는 반대입니다. 선에서 분별심·알음알이·분석적 사고 등을 마치 ‘질이 안 좋은 놈’ 줌으로 취급하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선원에 들어가면 입구나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入此門來(內) 莫存知解(입차문래 막존지해)”

이 선원에 들어오는 자는 알음알이를 갖지 말라.

불교에서는 지해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지해 가운데에는 분별지(分別智)와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있습니다. 분별지는 사물을 분석·고찰하는 것으로서 분별심·알음알이·분석적 사고 등이고, 무분별지는 분석을 떠나 사물을 직관적으로 고찰하는 것입니다. 문학에 비유하면 소설이나 수필 등 산문은 분별지의 산물이고 시(詩)는 무분별지, 직관의 산물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 佛性은 볼 수 없고 스스로 체득하는 것

## 24 요연 비구니

중국 당(唐)나라 때, 고안대우(高安大愚) 선사의 제자인 요연(了然) 비구니는 날카로운 기봉으로 선객들을 쫓아내며 한 여장부로 <전등록>에 이름을 올린 선사이다. 그는 말산(末山)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말산요연(末山了然) 스님이라고 불렸다.

어느 때, 요연 비구니가 말산에 있을 때 관계지 한(灌溪志閑 ?-895) 선사가 선지식을 찾아 다니다가 그곳에 들러서 이렇게 말하며 승당 안으로 들어갔다.

“만일 상당하면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선상을 뒤집어 엎으리라.”

요연 비구니가 시자를 보내 물었다.

“스님은 산에 유람다니 러 왔습니까? 불법을 위하여 왔습니까?”

관계 화상은 ‘불법을 위하여 왔노라’고 대답했다. 요연 비구니가 법상에 올라앉으니 관계 화상이 앞에 나아가 법자, 요연 비구니가 말했다.

“스님은 오늘 어디서 떠났습니까?”

“길 어귀(路口)에서 떠났습니다.”

“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로구(路口)는 지명도 되고, 길 어귀를 가리키는 이중의 뜻을 담고 있다.

‘왜 덮어버리지 않는가?’라는 뜻은 ‘길 어귀를 어슬렁거리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공격이다.

이 말에 관계 선사는 말이 막히고 말았다. 관계

선사는 자존심이 상했고, ‘비구니가 아무리 잘 나 도 남자 보다 안목이 뛰어날 수 있지 않은가?’하는 편견이 남아있다. 이에 관계 선사는 예배하면서 도 재차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어떤 것이 말산(末山)입니까?”

“꼭대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말산의 주인입니까?”

“남자 모양도 여자 모양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관계 선사가 ‘할’을 하면서 “어째서 변하지 못합니까?”하니 “귀신(神)도 아니고 도깨비(鬼)도 아니거늘 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하고 대답했다.

## 날카로운 기봉으로 선객들 쫓아내며 한 선사 오온에 집착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가 진리

이 문답에서 ‘말산’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말산요연 스님의 본성(本性)을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요연 스님은 ‘말산은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비로자나부처님의 머리 위와 같기에 누구도 본 일이 없다’는 뜻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본성, 즉 불성(佛性)은 스스로 체득하는 것일뿐, 볼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의미다.

“그렇다면, 말산에는 어떤 분이 살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관계 선사가 다시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하는데, 스님은 여성이지 않은가? 어째서 여성을 초월하지 못하는가?’하고 질문하자, 요연 스님은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인다.

“어떻게 그런 가당찮은 질문을 하는가? 본래 성품은 귀신도 도깨비도 아니니라네.”

카운터 펀치를 맞은 관계 선사는 요연이 여성의 몸이면서도 성법을 초월해 살아가는 선객임을 느끼게 된다. 불성은 남녀와 노소가 따로 없이 평등을 자각한 것이다. 요연 비구니는 간단한 문답을 통해 이를 깨우쳤고, 관계 선사는 수좌라는 상(相)을 버리고 편견없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에 관계 선사는 이 절에서 3년간 원두(圓頭)의 소임을 맡아 수행하였고, 나중에 임제의현(?-867) 선사의 법을 계승한 큰스님이 된다.

이처럼 많은 선객들을 깨달음으로 이끈 요연 비구니가 남긴 오도송은 이렇하다.

“오온의 망상 무더기가 그대로 고불당인데(五蘊山頭古佛堂/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야로 백호광명을 항상 놓고 있네(晝夜放毫光/ 만악 여기에서

차별없는 이치를 안다면(若知此處非同異/ 곧 이 화엄장엄이 시방세계에 두루 하리라(卽時華嚴遍十方).”

우리가 나(我)라고 집착하는 ‘물질과 정신작용’ (오온)은 허깨비와 같지만, 오온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대(理)가 진리의 몸이다. 번뇌와 보리가 들어 아님을 안다면, 시방세계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라는 뜻이다. <중도가>의 “배움이 끊어진 일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네.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불성이며 환상의 헛된 몸이 곧 법신이다”하는 법문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김성우 기자

## 신행게시판

●343일 조상천도제: 서울 조계사 6월 28일 오전 10시 343일 조상천도법회에 입재한다. 화형은 2009년 6월 5일 오전 10시 8월 15일 10월 3일, 11월 21일 2009년 1월 9일 2월 27일 4월 17일 6월 5일 천도제를 지낸다. 지만, 무진장, 동종, 해정, 도문, 정무 스님이 초청법사로 나선다. 천도제를 지낸 이후 구경시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02732-2115)

●통도사 여름수련회: 양산 통도사 6월 25일까지 여름수련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별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발심수련회는 7월 7~8일,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회발심수련회는 9~12일, 불교대학생 선별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진수련회는 14~15일, 참선수련회는 16~19일, 가족수련회는 24~26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싹수련회는 8월 4~6일,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한 희망수련회는 7~9일, 단기출가수련회는

11~13일 진행된다. (055)384-8380

●제15회 필만대장경강설 대회 (미륵상생경)=한천 해인사가 제15회 필만대장경 강설대법회를 6월 28일 오후 2시 보경당에서 개최한다. 지만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이 법사로 나서 필만대장경 중 미륵상생과 미륵상생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미륵상생경>을 강설한다. 동참비는 1만원이다. (055)934-3000

●용문사 철아기도=남해 용문사가 6월 20~21일 철아기도를 봉행한다. 매일 음력 17일 저녁 10시에 입재해 18일 지정제일에 회향하는 철아기도를 6월부터 시작한다. 앞으로 매일 음력 17일은 철아기도의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참금은 5만원 (055)862-4425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주세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 역학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료강의

### (4개월 과정) 명리 육요 관상 대모집

■교육목적: 역학의 학문적 위상과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위해 역학 필수과목인 명리 육요 관상의 기본과 실전능력을 고양시켜 대학과 대학원등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역학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국 역학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과목	강사	교육과정	시간(매주)	개강일시
명리학	유방현	4개월	10:30-13:00	6월28일(토)
육요학	유방현	4개월	11:00-13:00	6월27일(금)
관상학	최인영	4개월	10:30-13:00	6월29일(일)
역학한문	최인영	4개월	11:00-13:00	7월 3일(목)

■모집대상 : 동방대학원대학교 명리학 육요학 관상학 지도자과정 희망자 우선  
· 서라벌대 중수명리과 입학 희망자 우선  
· 대전대학교 동양철학과 입학 희망자 우선  
· 역학 전문가 및 창업 희망자

### ■강사약력

유방현 원장	최인영 교수
· 현 동방대학원 대학교 명리학 지도자 과정 전임교수 · 현 서라벌대학 중수명리과 교수 · 현 대전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조빙 연구원 · 저서: 초역역(신지정), 만방역학(명문당)	· 현 동방대학원 대학교 명리학 최고지도자과정 교수 · 현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관상학 교수 · 저서: 만방역학(명문당), 육요정경론(산학출판사)

■교재비: 월 3만원 (교재 및 관리비포함)  
■장 소: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오시는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분 출구(기업은행사이길 80미터)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KTA)**  
연락처 02)929-4646, 011-9902-4640

## “강문의학” 특강

### 수상으로 보는 질병예측 진단학

#### 공개특강 및 개강일시

2008년 6월 22일(일) 14시 - 17시 개강(8주 완성)

장문의학이란?? 사주의 분야 가운데 수상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학문으로 역학인들의 순수로운 상담을 위하여 최단시간에 능력 있는 질병예측 전문가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하며 그 위상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이론과정입니다.

#### 강의내용·학습 및 실습내용

- 동양학을 공부하는 방법론 제시
- 손을 보고 질병을 예측하는 장문의학의 비법비전 100% 공개
- 손의 중요 14선과 8중 병리문에 대한 해석 100% 공개
- 70여종의 현대의학의 질병을 환자의 실제 사진을 통한 학습
- 최초로 공개하여 단기간 학습으로 완벽하게 응용할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보장

◆담당교수: 정수호  
◆교수약력 : 북경중의과학대 중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동양학 대학원  
·현 서라벌대학교 중수명리학과  
·제상학 연구과정, “사주와 질병의학” 담당 지도교수

◆저 서 : “사주대로 병이온다”, “명리대정전”  
“명리학 길라잡이”, “나의 운명 나의 건강”

◆시 간: 매주 일요일 오후 14:00 - 17:00까지  
◆모집정원: 15명  
◆수 강 료: 50만원  
◆장 소: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분 출구(기업은행사이길 80미터)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KTA)**  
연락처 02)929-4646, 011-9902-4640

## 대한불교 국제 조계종 입종안내

국제 조계종은 국제화시대에 거듭나고자 불기2552년 1월 4일 ‘등록번호 37501-00146호’로 창종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열린 불교홍법에 동참하실 분은 즉시 연락바랍니다.

### ■안내 내용

1. 종정(1분)
2. 총무원장(1분)
3. 각 시,도 총무원장
4. 승려 및 청진주(대표자)

### ■구비서류

1. 입종신청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여권사진 4매
4. 이력서 1통
5. 사찰 및 포교원 내,외부 사진 각 1매씩

### ◆입종 후 특혜

본 종단은 미국 광 정부에서 등록 허가된 국제불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종단입니다. 원하는 분들에게는 장학금으로 국제불교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한 국 : 010-9945-2030 국제조계종 이사장 석일봉
- 미국 광 : 671-988-3601 국제조계종 조계사 주지 석일봉

**미국 국제 불교대학교 총장 석일봉**

##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지도”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적

-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설법실기
-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

### ■일시 : 수시접수 · 교육일시는 맞춤식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